

OCI, 폴리실리콘 영업전망 “대립”

우리증권, 영업이익 감소에 가수요도 기대난 ... SK증권은 매수 의견

OCI는 2012년 영업전망이 밝지 않지만 폴리실리콘(Polysilicon) 부분의 영업실적 개선을 놓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.

현대증권은 “OCI의 1/4분기 영업이익이 1019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폴리실리콘 판매물량 감소로 2011년 4/4분기에 비해서는 감소했다”며 “2/4분기 영업이익도 1023억원으로 1/4분기와 비슷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우리투자증권 김위 연구원은 “1/4분기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2/4분기 영업이익도 98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.3% 감소할 것”이라며, “독일의 태양광 보조금 정책 변화로 가수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, 미국, 일본 등 신흥시장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”이라고 진단했다.

우리투자증권은 OCI에 대한 투자의견 보유(Hold)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0만원에서 28만5000원으로 낮추었다.

반면, SK증권 손지우·한승재 연구원은 OCI의 2012년 순이익이 3872억원으로 2011년 7681억원에 비해 49.6% 줄어들고, 영업이익도 1조1140억원에서 5649억원으로 49.3%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.

그러나 폴리실리콘 시황은 2/4분기에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목표주가 31만원과 투자의견 <매수>를 유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20>